

재단법인 김희경유럽정신문화장학재단

한국독어독문학회 회장단은 2019년 2월 26일 서울시 양재동에 있는 재단법인 김희경유럽정신문화장학재단(이사장: 김정옥)을 방문하였다. 2006년 유럽대학에서 인문학 분야의 박사학위논문을 작성 중인 박사과정생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시작한 본 재단은 이후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현재는 학부생,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에게도 다양한 유럽연수 기회와 독회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간 한국독어독문학회의 여러 사업에도 후원을 아끼지 않아 왔다.



한국독어독문학회와 김희경유럽정신문화장학재단의 공고한 협력관계를 재확인하고 앞으로 더욱 긴밀한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재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정옥 재단이사장은 갖가지 어려움이 적지 않았던 장학재단의 설립과정과 역사에 대해 들려주며 재단건물 내의 여러 공간과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06년 제1회 장학생을 배출한 장학재단은 방문 당시까지 어문학, 철학, 역사 등 유럽 인문학 분야에서 총 49명의 박사를 배출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160여명의 학부생과 14명의 석·박사 과정 학생들에게도 유럽 수학 기회를 제공했으며 약 40팀의 박사과정 독회를 지원해 왔다. 건국대 독어독문학과 교수로 평생 강단에 섰던 김정옥 재단이사장은 어머니 김희경 명예 이사장의 뜻을 받들어 유럽인문학 전반을 고루 지원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독어독문학과 학생들도 많은 수혜를 받은 것이 사실이며 내년(2020년)이면 재단 창립 20주년을 맞게 되는 현재 배출한 박사 장학생들 중 상당수가 대학의 전임교원으로 자리 잡은 상황이라고 한다.

이사장님의 안내를 받아 둘러본 장학 재단 내의 다양한 세미나실(10석에서 60석까지 총 여섯 개)과 학술대회 및 공연이 가능한 영산홀(96석), 인문학 전문 도서관 등은 그 시설이 매우 훌륭한 데 비하여 아직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특히 인문학 전문 도서관은 개인이 소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고가의 외서를 비롯하여 총 만여 권의 장서와 2천 종 가까이 되는 멀티미디어 자료를 소장하고 방문객을 기다리고 있다.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도 소장 자료검색이 가능하다. 한국독어독문학회 회장단의 재단 방문 이후 김희경유럽정신문화장학재단에서 재단의 훌륭한 시설이 적극 활용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한국카프카학회에서는 올해(2019년) 가을 학술대회를 장학재단 내 영산홀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아래에 본 장학재단의 주요 사업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며 장학사업 및 도서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www.khk.or.kr/>

1. 장학사업

- 1) 학부생 어학연수 지원
- 2) 학부생, 석사과정생, 박사과정생 유럽대학 국제교류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대상자 지원
- 3) 석·박사과정생 유럽대학 연수 지원
- 4) 박사학위논문 작성 지원
- 5) 석·박사과정 대학원생 독회 지원

[1~5의 사업은 모두 유럽인문학과 이와 연관된 학문을 전공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함]

2. 전문도서관 운영

3. 영산홀 및 세미나실 무료 대관 (문의 전화: 02-578-5308)

- ◆ 영산홀: 96석 규모로 각종 세미나, 강연은 물론 소규모 콘서트 및 연극공연까지 가능한 종합문화예술 공간. 홀의 규모(80평)에 맞는 최적화된 무대, 음향, 영상, 조명 설비 구비.
- ◆ 세미나실: 10석 규모 3실, 12석 1실, 36석 1실, 60석 1실

(글: 한국독어독문학회 총무이사 조성희)

사단법인 독일유학후원회

김희경유럽정신문화재단에 이어 한국독어독문학회 회장단은 두 번째로 2019년 4월 19일 전라남도 곡성에 있는 사단법인 독일유학후원회(회장: 김화중)를 방문하였다. 이 독일유학회는 기숙 학교에서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학생들에게 독일어교육을 시켜 독일어 자격증을 따게 하고 이후 독일과 연결시켜 진로를 준비해 준다고 해서 화제가 된 단체이다.



전라남도 곡성의 강빛마을에 도착하자 산세가 그림같이 아름다운 산중에 유럽식 빨간 벽돌집들이 수십 채 자리 잡고 있어 독일마을 같은 이국적인 풍경을 이루고 있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독일어 학교가 자리한 아랫마을에서 김화중 회장과 이 유학회 자문을 맡고 있는 조선대 김옥선 교수를 만나보았다. 제 42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김 회장님은 KGG 회장단을 반갑게 맞으면서 독일어를 배우고 독일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유학회를 널리 알려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 회장은 경제적 사정으로 대학에 가지 못하는 한국의 젊은이가 많다는 것을 알고 대학교육이 무상이고 능력 있는 외국인에게 많은 기회와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독일과 연결을 시켜주고자 이 장학 사업을 시작하였다. 독일유학후원회는 독일어와 독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모집하여 독일진출에 가장 중요한 집중 독일어 교육을 시켜 어학 자격증을 따게 하고 독일과 연결시켜 대학교육을 받거나 취업을 하게 하는 대형 사업을 하고 있다. 조선대 김옥선 교수는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자문역으로 봉사하고 있는데 독일어 교육뿐 아니라 진로 모색에도 힘을 쓰고 있었다.

학생들은 1년에 두 번 선발을 하며 교육은 전액 무료이다(기숙사 비용은 유료). 이제까지 10기까지 모집하였다. 교사진은 김재상 박사를 비롯하여 3명의 교사진(그 중 2명의 원어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사들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아예 이 마을로 이주하여 헌신적으로 가르치고 있었다. 방학기간에는 독일 튀빙엔 대학 한국어과 독일학생들이 실습생으로 와서 4~5주를 같이 거주하면서 독일어를 가르치고 한국어를 배운다. 선발된 학생들 또한 매우 성실하고 열성적이고 목표가 뚜렷하여 학습공동체를 이루어 24시간 몰입 환경에서 독일어를 배우고 있다. 이러한 기숙몰입교육을 통하여 6개월에 B1수준의 독일어 실력을 갖추는 것이 목표이다. B2가 목표일 때에는 2개월간 교육을 더 받는다. 이제까지 8기가 진행되는 동안 실제로 80%가 이 목표를 달성하였고 50%는 B2까지 취득하였다고 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의 최대 장점은 독일과의 지속적인 연결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입교와 동시에 적성 및 진로검사를 받고 교육기간 중에 직업교육이나 진학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독일 진출(대학입학지원, 듀얼 직업훈련을 위한 기업의 일자리 탐색, 청년 취업준비생을 위한 취업 탐색)과 관련한 상담, 각종 지원서 작성, 일자리 발굴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에도 독일의 정부기관, 현지기업, 교민 네트워크, 그 외 단체들과 연결하여 더 많은 일자리를 연결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빛마을은 펜션 시설과 강당 등의 시설도 편안하고 깨끗하게 잘 갖추어져 있고 주변에 답사할 자연과 문화유적지가 많아 학과 단체행사를 치르기에 좋다. 자세한 것은 독일유학 후원회 홈페이지 www.deuts.or.kr 후원회소식에 공지되어 있다. 현재 7월 1일에 개강하는 B1 과정 편입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글: 한국독어독문학회 부회장 최윤영)